초등학교 앞 왕복 4차선 도로 '아찔'

광주 본촌초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안돼

학부모 불안 호소…"학교장 확장 요청 있어야"

광주 북구 본촌초등학교 인근 네거리에서 한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건너는 도로에 신호 위반 차량 등으로 불안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걱정이에요."

광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왕복 4차선 도로가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8일 광주 북구 본촌초등학교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 등굣길 학생들이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다. 학생들이 있을 때 차들은 신호에 따라 멈춰 있었지만, 일부 차량은 학생들이 드문드문한 틈을 타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하기 일쑤다.

일부 차량은 파란불 신호를 보고 주행을 하다가도 빨간불 신호가 뜨자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진입해 멈추는 등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다. 경사로인 데다가 앞에 트럭 등의 큰 차량이 있을 경우 신호등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학부모는 "주변에 불법주정차도 돼 있어서 혹시나 아이들이 튀어나올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까 걱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앞 이면도로에만 지정돼 있어서 학교를 보내기 걱정된다"고 말했다.

본촌초 인근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학생들이 통학하기 위해 건너야 하는 왕복 4차선 도로는 정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조 보호구역 지정에 따르면 학교 주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사로가 심한 이 왕복 4차선 도로는 학교와의 거리가 50m 정도에 불과하지만 학교 정문으로부터 약 400m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는 학교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통학로로 사용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면 학교장이 자치구에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조정을 한다"며 "조정에 대한 경찰에 의견을 보내면 경찰에서 현장을 보고 판단해 의견을 자치구에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에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며 "지정권은 자치구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학교장이 신청하면 구에서 검토 후 시에서 지정한다"며 "현재까지 학교 측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확장을 요청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코로나 경영난'에 보이스피싱…자영업자 유서쓰고 잠적

슈퍼 운영난에 대출 알아보다 4500만원 사기

부산서 발견…수거책 1명 검거, 일당 추적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49)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4500여만원을 잃게 되자 유서를 쓰고 잠적했다.

A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가 지난 5일 부산 한 모텔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아버지가 유서를 쓰고 사라졌다'는 가족들의 신고로 수사를 하던 중 A씨가 부산 서부터미널에 하차한 것을 확인, 부산 경찰의 공조로 A씨를 11일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가게 재정 상태가 좋지 않자 온라인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업체에 사기를 당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 SNS로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실물 사진을 보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 중 수거책을 검거한 후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조직원들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틈을 타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경영난을 겪는 업주들이 쉽게 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쉬운 대출을 해주겠다며 계좌 비밀번호를 물을 때는 꼭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승호 기자

허위·과장 광고 혐의 먹방 유튜버 밴쯔 항소심도 벌금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정만수씨(밴쯔)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익대학교 학생, 원하면 성적 패스

대학가에서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익대학교가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적 평가를 유연화하는 조치에 나섰다.

홍익대는 올해 1학기 성적에 대해 학생들이 부여된 성적을 그대로 받을지 아니면 '패스'(Pass, 통과) 처리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패스 처리를 하게 되면 성적표에는 A, B, C, D의 성적 대신 수업을 이수했다는 의미의 P 표시만 기재된다. 홍익대는 D학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는 경우 성적 정정 기간 내에 해당 수업의 성적을 P로 처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P로 처리된 과목은 학점 평점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유리하다. 만약 1과목만 A+(평점 4.5점)를 받고 나머지 과목을 전부 D(평점 1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D학점을 받은 과목을 전부 P로 처리한다면 평균 평점은 4.5가 된다. 다만 P를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이 불가능하며 학점 포기도 할 수 없고 추후 변경 신청을 번복할 수도 없다.

"술만 마시면…" 마트에서 행패 60대 여성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A씨(63·여)를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쯤 광주 북구 한 마트에서 술 취한 상태로 스테인리스 재질 살충제를 마트 주인 B씨(55) 이마에 두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가 있다.

A씨는 계산하지 않고 가게를 나서려는 자신을 B씨가 제지하자 계산대 위에 있던 살충제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다섯 차례 상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주민들에게 폭언·폭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옥상 화분 양귀비 350주 재배 60대女 입건

광주 동부경찰서는 8일 연립주택 옥상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350주를 불법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62·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지난 5월17일까지 광주 동구 한 연립주택 2층 옥상에서 스티로폼 화분 150개 중 130개에 양귀비 3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만큼 이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옥상에서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양귀비를 일부 채취하고 불법 재배 현장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후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혼자 경운기 몰고 밭일 나선 노인들 잇따라 숨져

농번기에 홀로 경운기를 몰고 밭일에 나선 노인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완도군 노화읍 한 야산에서 밭일을 나선 A씨(84)가 경운기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부상 정도가 심해 결국 숨졌다. 이날 야산 중턱 자신의 밭으로 향하던 A씨는 울퉁불퉁한 산길에서 경운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농사철 시골에서 홀로 논·밭일을 나선 노인들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일행과 함께 해야 하고 비포장도로에서 경운기를 운전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술값 안 깎아줘서"…단골주점 간판 불 지른 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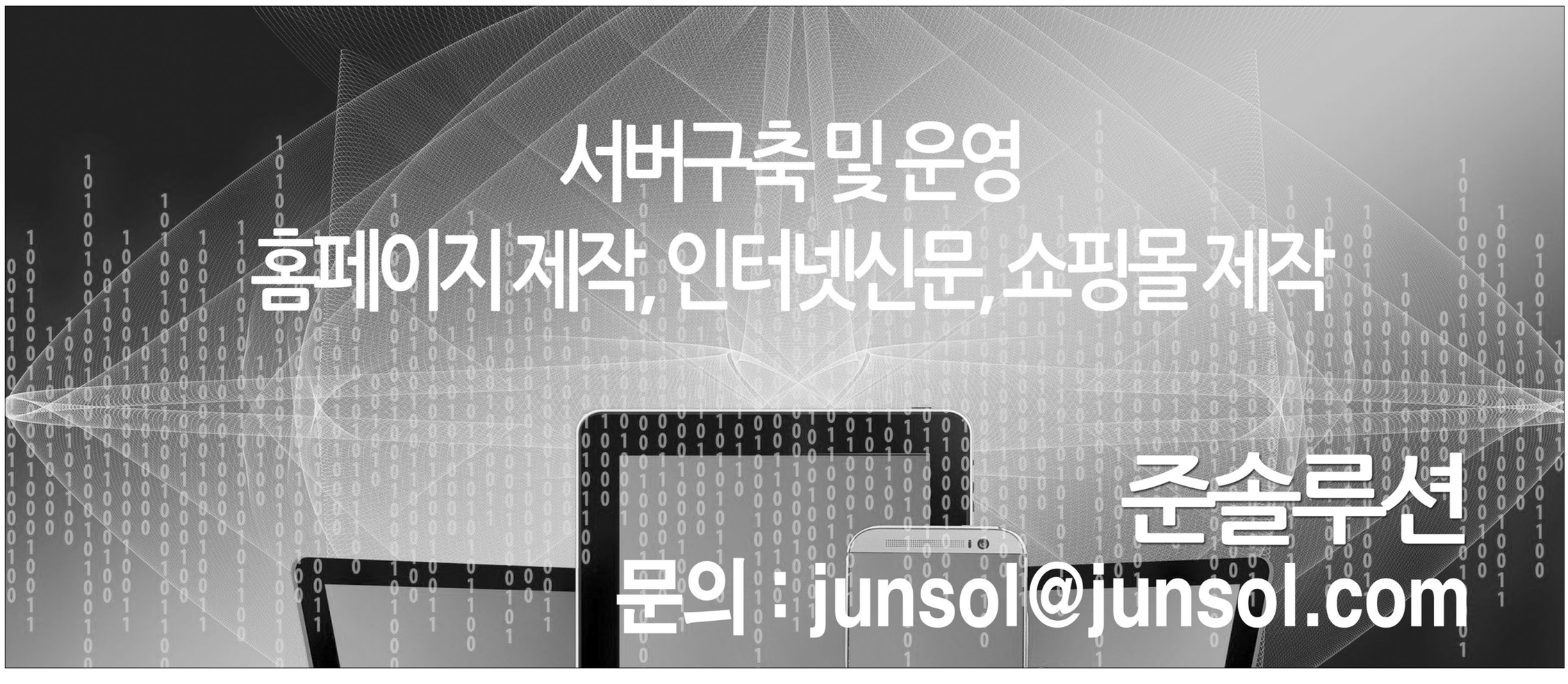
광주 북부경찰서는 주점 앞 에어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5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주점 앞에 설치된 에어간판의 뚜껑을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점의 단골고객으로 술값을 깎아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업주가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을 질렀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화기로 불을 끄고, 주점 계단에 앉아있던 그를 체포했다.

냉동고 수리비용 다투다 수리기사 찌른 50대

광주 남부경찰서는 장식용 진검으로 사람을 찌른 혐의(특수폭행)로 A씨(5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13분쯤 광주 남구 대촌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장식용 진검으로 냉동고 수리기사 B씨(36)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냉동고 수리비용을 놓고 B씨와 다투다가 집에 보관 중이던 검을 B씨 가슴에 밀치듯이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날이 서지 않은 검이라 B씨가 다치지는 않았다.